

**부록 1. 시나리오 및 반응대안의 예**

※ 다음은 대학생들에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을 본인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, 본인이라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할지 그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하십시오.

상황1. 수학 전공수업 시간이다. 시간 안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그 과정과 결과를 적어서 제출 해야 하는 상황이다. 평소 전공 공부를 틈틈이 해왔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다. 하지만 옆에 있던 공부 잘 하는 친구와는 정답만 같을 뿐, 그 풀이과정은 완전히 달랐다.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정석 그대로 풀이했다고 한다. 하지만 내가 푼 방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접근했던 방식이었기에, 나는 다시 한 번 내 풀이과정을 재검토 해보았다.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 풀이과정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.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풀이과정으로 제출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다.

전혀		매우
그렇지 않다	보통이다	그렇다

- ① 나는 답안 제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풀이과정을 끝까지 파고들어 볼 것이다.....1.....2.....3.....4.....5
- ② 나는 누가 뭐래도 나의 능력을 믿으며, 내 풀이과정이 더 설득력 있다고 확신한다.....1.....2.....3.....4.....5
- ③ 나는 이처럼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면 할수록 궁금한 것들이 많아진다.....1.....2.....3.....4.....5
- ④ 나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식이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.....1.....2.....3.....4.....5
- ⑤ 비록 내 점수가 나쁘게 나올 수 있을지라도, 내가 발견한 새로운 풀이과정대로 제출해 보고 싶다.....1.....2.....3.....4.....5
- ⑥ 친구와 나의 해결책 중, 어느 것이 옳든 개의치 않고 혼자서 이 실험 문제를 해결 해 볼 것이다.....1.....2.....3.....4.....5

## 부록 2. 문항

- ① 나는 답안 제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풀이과정을 끝까지 파고들어 볼 것이다.
- ② 나는 누가 뭐래도 나의 능력을 믿으며, 내 풀이과정이 더 설득력 있다고 확신한다.
- ③ 나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식이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.
- ④ 비록 내 점수가 나쁘게 나올 수 있을지라도, 내가 발견한 새로운 풀이과정대로 제출해 보고 싶다.
- ⑤ 친구와 나의 해결책 중, 어느 것이 옳든 개의치 않고 혼자서 이 실험 문제를 해결 해 볼 것이다.
- ⑥ 나는 물리학의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기에, 대학원에 진학해보고 싶다.
- ⑦ 내 힘으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, 내 힘으로 앞가림 할 수 있는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- ⑧ 나는 오래도록 간직했던 내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,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다.
- ⑨ 나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내 꿈을 이룰 자신이 있다.
- ⑩ 같은 과 친구의 도움 없이, 타 학과 친구들만 있는 수업에서도 독립적으로 해내보고 싶다.
- ⑪ 익숙한 전공수업이 아닌, 새로운 교양수업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.
- ⑫ 나는 이 상황이 고민은 되지만, 내가 이 수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.
- ⑬ 나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위해서라면, 타 학과 학생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.
- ⑭ 수강취소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이 수업을 들어보도록 노력 할 것이다.
- ⑮ 혼자인 상황이 비록 낯설지만, 평소 이 수업에 대해 궁금하고 많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수강해 보고 싶다.
- ⑯ 난, 친구들과 관계없이 내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.
- ⑰ 혹여 시간을 조금 초과하게 된다 해도, 베끼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내보고 싶다.
- ⑱ 시간이 부족해 어렵겠지만, 그래도 제 시간 안에 내가 풀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.
- ⑲ 나는 친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황도,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해 본다.
- ⑳ 나는 대부분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의문을 갖는다.
- ㉑ 나는 쉬운 왼쪽 길(쉬운 문제)보다는, 얻을 것이 더 많은 오른쪽 길(어려운 문제)을 더 좋아한다.
- ㉒ 나는 이곳 옛 한옥마을처럼, 어떤 낯선 곳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왔기 때문에, 이곳을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오른쪽 길로 한번 가보고 싶다.
- ㉓ 나는 친구들이 뭐라 해도 나의 판단과 선택이 맞다고 믿는다.
- ㉔ 두 갈림길 어느 쪽이든 간에, 최종 결정과 판단은 내 스스로 할 것이다.
- ㉕ 나는 평소 새로운 상황에 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, 낯선 외국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.
- ㉖ 나는 그곳의 신기하거나 색다른 환경에 대해 알고 싶다.
- ㉗ 나는 한번 가고자 마음먹었던 일이라면 그게 낯선 외국이라도 끝까지 갈 것이다.
- ㉘ 나는 낯선 외국에서도 내 일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.
- ㉙ 비록 그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지라도,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해외 연수라면 도전한다.
- ㉚ 나는 또 다른 학교들의 획기적인 축제 아이디어들에 대해 궁금해서,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.
- ㉛ 타 대학의 축제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 과만의 독립적인 이벤트를 모색해 볼 것이다.
- ㉜ 친구들 중 내 아이디어 보다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.
- ㉝ 학과 친구들이 내 의견에 동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것이다.
- ㉞ 나는 내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고,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.
- ㉟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시킬 것이다.

- ③⑥ 나는 내가 처음 다짐했던 초심을 믿고, 앞으로 봉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.
- ③⑦ 나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을 더 관찰하고, 알아가고 싶다.
- ③⑧ 나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고,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.
- ③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, 생소한 이곳에서 진정한 봉사에 도전해 보고 싶다.
- ④⑩ 부모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, 최종 결정은 내가 스스로 할 것이다.



#### 부록 4. ESEM을 사용하여 최종해를 산출한 MPLUS 명령문

아래의 프로그램에서 [ ]는 default임.

##### A. 2차 분석 명령문(기초해 추정, 탐색적 회전)

```
DATA:file=C:\CP\scored_40.txt;           ! 파일을 불러들임.
VARIABLE: NAMES ARE a1-a40;             ! 변수는 a1부터 a40으로 구성됨.
      [Usevariable = a1-a40;]           ! 40개 변수 모두 사용]
ANALYSIS: [estimator=ML;]               ! 기초해의 추정은 ML로 함.
      [rotation=geomin;]                 ! <탐색적 회전>
      rowstandardization=kaiser         ! 행 표준화는 Kaiser 방식
MODEL: f1-f4 BY a1-a40(*1); ! <탐색적 요인모형>, * 표시는 EFA 의미, 1은 모수집합 번호
```

! <측정오차간 상관>은 1차 분석시 유의하게 나온 것만 추정, SEM 기능

a1 with a2; a2 with a5; ! 소검사1

<중간 생략: 표1과 동일>

a35 with a36 a39; a36 with a37; a37 with a38 a40; a38 with a39; a39 with a40; ! 소검사8

output: residual STDY modindices(10);

##### B. 3차 분석 명령문(기초해 추정, 확인적 회전)

<DATA 블록과 VARIABLE 블록은 2차 분석시와 동일>

```
ANALYSIS: [estimator=ML;]
      rotation=target;                   ! <확인적 회전>
      [rowstandardization=corr;]        ! 행 표준화를 하지 않음.
```

! 목표행렬(표2 참조) 표시, 요인계수가 추정될 변수들을 해당 요인과 함께 제시 후, 계수가 0으로 제약될 변수들을 ~0으로 지정.

```
MODEL: F1 BY a3 a4 a6 a11 a15 a19 a20 a22 a25 a26 a30 a31 a37 a38 a39
      a1-a2~0 a5~0 a7-a10~0 a12-a14~0 a16-a18~0 a21~0 a23-a24~0
      a27-a29~0 a32-a36~0 a40~0(*1); ! * 표시는 EFA 의미, 1은 모수집합 번호
F2 BY a1 a2 a8 a9 a12 a14 a16 a18 a21 a27 a29 a33 a34 a35 a36
      a3-a7~0 a10-a11~0 a13~0 a15~0 a17~0 a19-a20~0 a22-a26~0
      a28~0 a30-a32~0 a37-a40~0(*1); ! 표2의 2번 요인에 대한 부분
```

<F3과 F4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, 모수집합 번호는 1: 모수는 표 2 참조>

! <측정오차간 상관>은 2차 분석시와 동일

a1 with a2; a2 with a5; ! 소검사1

<중간 생략>

a35 with a36 a39; a36 with a37; a37 with a38 a40; a38 with a39; a39 with a40; ! 소검사8

output: residual STDYX modindices(10);